

“ ‘미국·유럽 진출’ 세계 요트시장 선도 할 터”

향토기업 열전

(주)푸른중공업



김봉철 대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해양레저산업에 도전, 전국화 세계화를 목표로 전진하는 기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불산단에 위치한 (주)푸른중공업(대표 김봉철)이 그 주인공.

지난 1998년 설립된 (주)푸른중공업은 선박 건조와 선박용 파이프, 블록 등 선박 부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다 성장을 거듭, 현재는 요트 제조기업으로 우뚝 서 국내 요트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요트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지닌 유망업종이라고 판단한 김봉철 대표는 2000년에 요트 제조업에 진출했다.

이후 회사는 요트, 워크보트 등 선박 건조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데 힘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3년 요트개발을 위한 ISO인증을 시작으로,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외 10개의 인증서를 획득하는 등 품질경영체제를 빠르게 구축했다.

국내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요트 건조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R&D자금과 인력을 투자했으며 2006년부터는 본격적인 요트 생산을 시작했다.

현재 푸른중공업의 고용인원은 46명 매출액은 100억원에 달하며 이종 요트 매출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푸른중공업의 요트는 갑판상에서 두 개의 선체를 동체로 결합시킨 선체가 특징이다.

운항 안정성이 좋고 조파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 강, 호수에서 레포츠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고객 맞춤형 수제방식으로 제작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절반 가격에 보트를 공급, 해외에서 꾸준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푸른중공업의 남다른 경쟁력은 수준 높은 기술력과 차별화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

레저용 요트의 경우 디자인과 인테리어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사의 인지도와 신뢰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요트 산업의 특성상 기술향상은 필수조건이다.

김 대표는 “사업 초기만해도 국내 요트 산업은 인력, 장비, 시장 등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레저 요트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탈리아 등에서 전



(주)푸른중공업이 뛰어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알루미늄·스틸 요트를 제작해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문성 강화·기술력 모토... 경쟁력 제고

2020년 맞춤형 수제 슈퍼요트 제작 목표

진조기술·노하우 축적으로 리치마켓 겨냥

문가를 초빙해 기술을 습득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요트 시험건조에 들어간 푸른중공업은 2007년 첫 43피트급 알루미늄 레저용 파워요트를 인선에 첫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65피트급 알루미늄 요트를 싱가포르로 인도해 첫 수출길을 열었다.

이후 터키, 베트남, 이라크 등 지금까지 국내외에 30여척의 요트를 보급했

다.

푸른중공업은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100ft급 대형요트 설계·건조 기술개발 및 시제선 건조’ 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0년까지 21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맞춤형 수제 슈퍼요트 제작에 도전, 현재 3차 건조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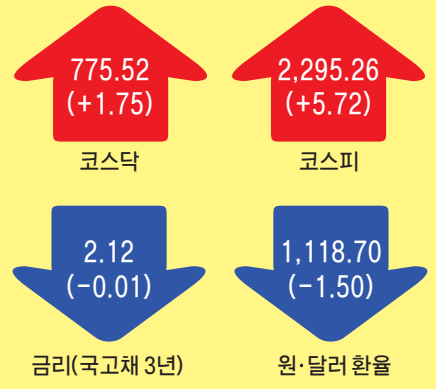
푸른중공업은 이 대형요트를 필두로 미국 및 유럽의 리치마켓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최근 해양 환경 오염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알루미늄 작업선과 전기·태양열 선박 등 신 선박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푸른중공업 김봉철 대표는 “현재 조선업 경기가 좋지않고 중국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악재를 맞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토대로 고객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해 내겠다”며 “국내 요트 산업의 세계 기반과 표준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꾸준한 실력을 다져 향후 국내 건조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눈에 쪽 경제지표



aT, 할랄시장 공략 나서

말레이시아 K-Food Fair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동남아 중심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한국 농식품 및 할랄인증 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2018 쿠알라룸푸르 K-Food Fair’ 개최한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바이어 초청상담, 소비자 체험 행사 등을 운영하는 종합 페스티벌이다.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K-Food Fair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B2B·B2C 통합한 K-Food Fair는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36개소와 100여명이 넘는 바이어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수출상담회, 이슈세미나 등 B2B 행사와 함께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K-POP 미니콘서트, 쿠키쇼, 체험 홍보부스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K-Food Fair는 할랄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 중추국으로 aT는 이번 기회에 이어 대상 할랄 이슈세미나 개최, (사)한국할랄수출협회와 함께 할랄존 운영 등을 통해 한국 할랄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백진석 aT 수출이사는 “지난 6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하노이 K-Food Fair에 이어 아세안지역 시장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조성된 한국식품의 열기를 세계 최대 무슬림 국인 인도네시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8월 18일에 개최되는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아간담회 기간에도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높은 관심

가을학기 116명 지원·경쟁률 3.9대 1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9일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 8기 가을학기 입교자를 모집한 결과 550명 모집에 2,077명이 몰려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을학기부터 신규 개소한 전

남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116명이 지원해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접근성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던 전남지역 청년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신청자는 7~8월 서류심사와 예비창업심화과

정 및 PT심사를 거쳐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9월부터 본격적인 창업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선발된 창업자는 1년간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창업 공간 제공, 실무교육, 기술 및

마케팅 전문가의 밀착코칭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중진공은 졸업 후에도 성장추진 프로그램을 적용해 정책자금, 마케팅, 수출, 투자유치 등 연계 지원으로 성공 창업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김희수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신규 개소는 지역의 우수 청년CEO가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 및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와 중진공의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하의 창업자를 선발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후속연계지원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총 1,930명의 청년 CEO를 배출해, 매출액 1만1,769억원, 지재권 등록 4,167건, 일자리 창출 4,617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길용현 기자



(주) 송도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임대 문의

소촌동 | 24py ☎(062) 382-8879
송정동 | 19py ☎(062) 382-5388

가족회사 (주)금호주택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 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